



전주대서 공학도를 위한 인문학캠프 성황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유규선)에서 열린 공학도를 위한 인문학 캠프에 전국 20여개 대학에서 8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대 캠퍼스 일대에서 열린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는 주제의 인문학 캠프는 교육부가 선정한 각 대학 공학교육센터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전주대, 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선문대, 숭실대)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번 캠프는 인문학을 통한 통합적 사고 능력과 자기 체험을 통한 주도적 지식 습득 능력 및 융합적 콘텐츠 생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획됐다.

소인섭 기자

90 X 109 mm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는 주제로 공학도를 위한 인문학 캠프를 실시했다.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

전북대, 전국 20여개 대학 공학도 인문학 캠프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유규선)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20여개 대학 80명의 공학도가 참여한 가운데 본교 캠퍼스 일대에서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는 주제로 공학도를 위한 인문학 캠프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선정한 각 대학 공학교육센터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전주대, 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선문대, 송실대)가 주관하는 이 캠프는 지난해부터 개최됐으며 전주대에서 제2회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주최로 21세기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적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캠프로서, 인문학을 통한 통합적 사고 능력과 자기 체험을 통한 주도적 지식 습득 능력 및 융합적 콘텐츠 생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획됐다.

/윤복진 기자
edy1204@daum.net

111 X 157 mm

全羅日報

2013 08 09 ()
02

전주대 공학도 인문학캠프 성료

전주대가 마련한 공학도를 위한 인문학캠프가 성황리에 마감됐다.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유규선)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20여개 대학 80명의 공학도를 대상으로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는 주제로 인문학 캠프를 실시했다.

/박은영기자·zukka@

59 X 50 mm



전주대, 공학도 위한 인문학 캠프 성황

전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유규선)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20여개 대학 80명의 공학도가 참여한 가운데 본교 캠퍼스 일대에서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는 주제로 제2회 인문학 캠프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선정한 각 대학 공학교육센터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전주대, 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선문대, 숭실대)가 주관하는 이 캠프는 지난해 처음 열렸다.

이번 캠프는 21세기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적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인문학을 통한 통합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학생들은 팀당 4명씩 20개 팀으로 나뉘어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한식의 미학(차경희 교수), 한식에 담긴 과학과 기술(차진아 교수), 음식에 공학을 더하는 분자요리(이환의 콩두 총괄셰프, 강민구 SM크라제 팀장) 등의 전문가 강연에 참여했다.

더불어 4명의 멘토가 캠프 기간 참가자들의 수행 과제를 점검하고 공학도로서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유규선 센터장은 “세계적으로 통섭적 사고가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 대학의 공학도들이 모여 통합적 사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캠프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발전하길 바란다”며 “캠프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공학을 이끌어가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국기자 psy2351@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공학을 더하라’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전국 대학 공학도 대상 인문학 캠프 실시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유규선)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20여개 대학 80명의 공학도가 참여한 가운데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는 주제로 인문학 캠프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선정한 각 대학 공학교육센터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전주대, 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선문대, 숭실대)가 주관하는 이 캠프는 지난 해부터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주최로 21세기 공학자에

게 요구되는 창의적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캠프로서, 인문학을 통한 통합적 사고 능력과 자기 체험을 통한 주도적 지식 습득 능력 및 융합적 콘텐츠 생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캠프 참석자 80명이 팀당 4명씩 20개 팀으로 나누어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한식의 미학(차경희 교수), 한식에 담긴 과학과 기술(차진아 교수), 음식에 공학을 더하는 분자요리(이환의 콩두 총괄셰프, 강민구 SM크라제 팀장) 등의 전문가 강연과, 전주한옥마을 탐방, 팀별과제 수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문학적 지식을 넓

히는 시간을 갖었다. 더불어 4명의 멘토가 4일 간의 캠프를 같이하며 참가자들의 수행 과제를 점검하고 공학도로서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서 상담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유규선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통섭적 사고가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 대학의 공학도들이 모여 통합적 사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캠프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발전하길 바라며, 캠프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공학을 이끌어가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본교 캠퍼스 일대에서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는 주제로 공학도를 위한 인문학 캠프를 가졌다.

전주대, 공학도를 위한 인문학 캠프 화제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는 주제로 4일간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유규선)가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20여개 대학 80명의 공학도가 참여한 가운데 본교 캠퍼스 일대에서 '한식, 음식에 공학을 더하라'는 주제로 공학도를 위한 인문학 캠프를 가졌다.

교육부가 선정한 각 대학 공학교육센터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전주대, 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선문대, 숭실대)가 주관하는 이 캠프는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것.

이는 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주최로 21세기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적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캠프로, 인문학을 통한 통합적 사고 능력과 자기 체험을 통한 주도적 지식 습득 능력 및 융합적 콘텐츠 생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획됐다.

캠프 참석자 80명이 팀당 4명씩 20개 팀으로 나누어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한식의 미학(차경희 교수), 한식에 담긴 과학과 기술(차진아 교수), 음식에 공학을 더하는 분자요리(이환의 콩두 총괄셰프,

강민구 SM크라제 팀장) 등의 전문가 강연과, 전주한옥마을 탐방, 팀별과제 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4명의 멘토가 4일 간의 캠프를 같이하면서 참가자들의 수행 과제를 점검하고 공학도로서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도 열렸다.

유규선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융합적 사고가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 대학의 공학도들이 모여 통합적 사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캠프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발전하길 바란다"며, "캠프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공학을 이끌어가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근 기자